

글로벌 ETF Weekly

하나 글로벌 위클리

글로벌 ETF로 보는 시장 트렌드: 고용 대기

고용개선시 스타일 변화 가능. XLF, XLE, DBC, QUAL, ESGU, XLK, FDN 관심

연준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재개되면서 금융시장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테이퍼링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엇갈리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으나, 조기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는 일단 약화되었다. 이른 시기의 금리인상 경계(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커브가 평탄화(Flattening)되었던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구간 금리가 홍보하는 가운데 10년 국채금리는 1.50%대로 복귀하였다. 업종 로테이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도 반등하였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92pt를 넘어섰던 달러인덱스는 91pt대로 내려왔다. 유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며 금 가격은 홍보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ETF 시장의 전방위 확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금 유입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주식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FOMC를 전후하여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가 반영된 기간동안 북미와 서유럽 등의 선진국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17.3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조기 금리인상 우려 이후 나타난 중장기 채권금리 하락 가운데 북미 지역의 채권형 ETF로는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유럽과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스타일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로테이션이 반복되는 현재의 시장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금 순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대형 성장주 ETF(IWF, IWP, VONG)들과 가치주 ETF(IWN, IWD, VONV)들이 S&P500지수를 추종하는 SPY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리츠 편입 ETF인 IYR과 신흥국 증시 ETF인 VWO, 혁신기업 ETF인 ARKK와 임의소비재 ETF인 XLY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채권형 ETF 부문에서는 채권 전반을 고르게 편입하는 BND, 단기 IG 회사채 ETF인 IGSB와 VCSH, 하이일드 회사채 ETF인 HYG와 JNK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준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연준은 기존 스탠스대로 경기회복이 확인되는 국면에 들어서야 후행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뜻을 인지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모습은 장단기 금리 커브 변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상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안정과 경기회복이 향후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변수로 인식될 것이다. 이 가운데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던 인프라 정책 관련 협상 진전은 향후 고용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고용개선 확인 시점까지 XLF(금융업)의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 강세 기대 가운데 XLE(에너지)와 DBC(상품선물), 펀더멘탈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는 QUAL(퀄리티)과 ESGU(ESG)에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성장성과 높은 이익률을 유지 중인 대형 기술주 중심의 XLK와 VGT(IT),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편입하는 FDN 역시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볼만한 종목이다.



글로벌 ETF / FI 박승진
02-3771-7761
sj81.park@hanafn.com

RA 한재혁
02-3771-3112
jaehyukha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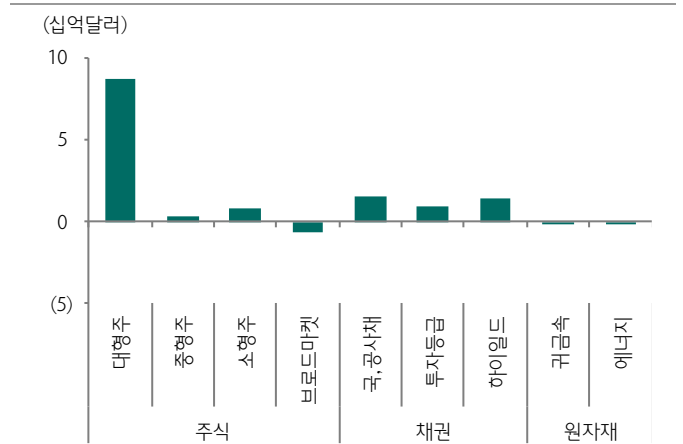
Global ETF Weekly Chart

표 1. 미국 상장 ETF 기준 자산 분류별 주간 자금 순유출입 금액

자산군	구분	순유출입(\$MM)
주식	대형주	8,689
	중형주	300
	소형주	864
	브로드마켓	(614)
채권	국,공사채	1,598
	투자등급	942
	하이일드	1,387
원자재	귀금속	(133)
	에너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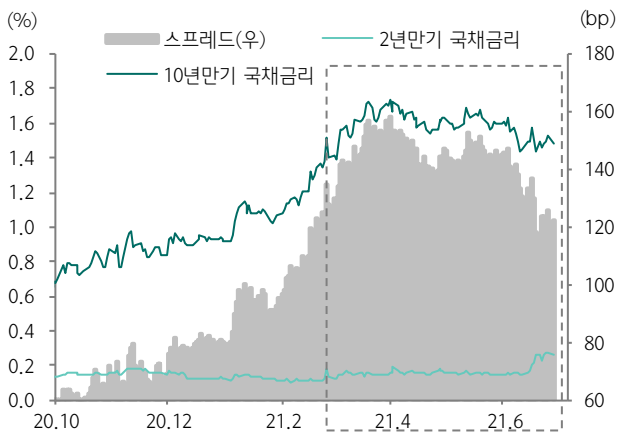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1. 미국 상장 ETF 기준 자산 분류별 주간 자금 순유출입 금액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3. 글로벌 통화 공급량과 S&P500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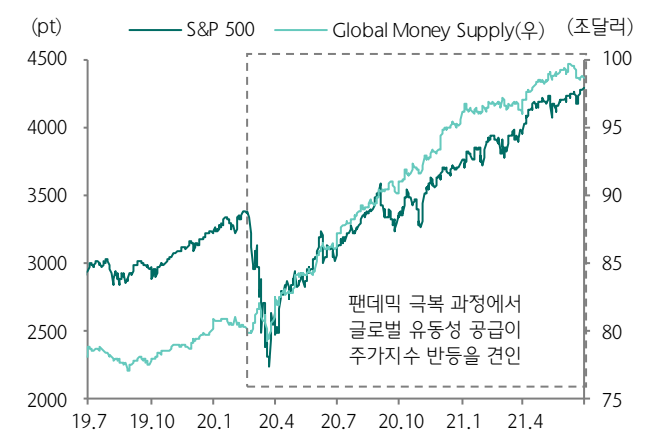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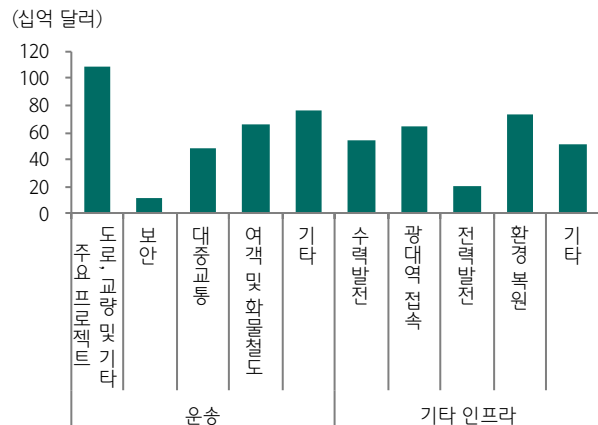
주: 미국, 유럽, 중국,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13개국 통화 공급량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4. 현재 논의 중인 미국 인프라 정책 내용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대표 인터넷 ETF인 FDN의 상위 편입 종목

종목	비중
Facebook A	4.66%
NIKE B	3.46%
Microsoft	3.26%
Apple	3.18%
BlackRock	3.11%
Johnson & Johnson	3.08%
Mastercard A	2.72%
Target	2.63%
NVIDIA	2.52%
UnitedHealth	2.48%

주: 6월 7일 기준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백만 USD)				총자산 (백만 USD)	유입강도 (%)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473	7,675	4,184	4,291	1,035,617	0.14
		북미	4,721	26,603	8,221	2,231	4,391,439	0.11
		서유럽	72	2,378	2,852	1,743	357,851	0.02
		아시아 태평양	699	(272)	728	1,733	634,582	0.11
	선진시장 Total		6,965	36,384	15,985	9,998	6,419,488	0.11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853	927	1,358	1,787	334,015	0.25
		신흥아시아	(2,376)	160	(1,801)	(2,100)	330,431	(0.71)
		EMEA	(21)	(22)	100	17	11,004	(0.19)
		남미	(188)	49	(218)	(203)	26,933	(0.69)
	신흥시장 Total		(1,731)	1,115	(561)	(499)	702,383	(0.25)
	주식 ETF Total		5,233	37,498	15,424	9,499	7,121,871	0.07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962	513	752	590	133,138	0.72
		북미	2,769	3,269	2,743	2,025	1,196,421	0.23
		서유럽	(287)	(335)	20	1,141	146,155	(0.19)
		아시아 태평양	21	6	13	17	7,000	0.29
	선진시장 Total		3,464	3,454	3,528	3,773	1,482,714	0.23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266)	(280)	532	0	77,542	(0.34)
		신흥아시아	(431)	329	298	193	34,416	(1.22)
		EMEA	8	9	12	8	1,148	0.70
		남미	(0)	(0)	0	0	967	(0.00)
	신흥시장 Total		(689)	58	843	201	114,073	(0.60)
	채권 ETF Total		2,775	3,512	4,371	3,974	1,596,788	0.17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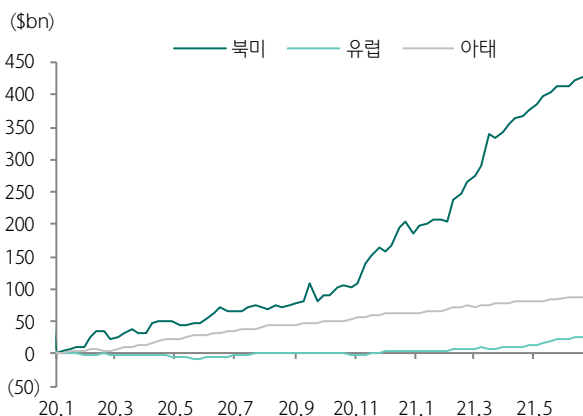
주1. 기준일: 21.6.25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전방위 확장 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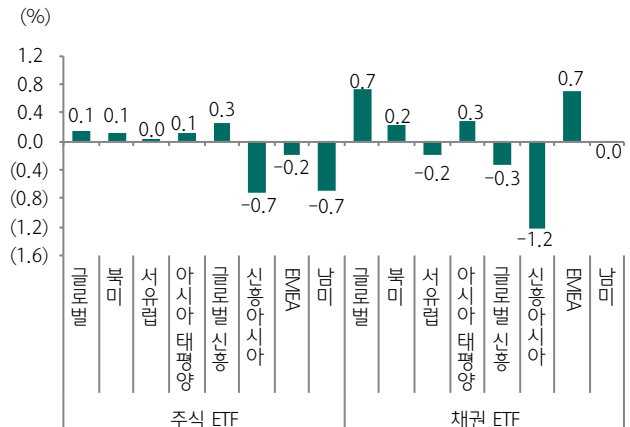
글로벌 ETF 시장의 전방위 확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금 유입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주식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FOMC를 전후하여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가 반영된 기간동안 북미와 서유럽 등의 선진국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17.3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초기 금리인상 우려 이후 나타난 중장기 채권금리 하락 가운데 북미 지역의 채권형 ETF로는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유럽과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그림 5. 2020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6.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미국 상장 ETF 중 자금 순유입 주간 상위 20개 종목

주식형 ETF

(단위: 백만 달러)

티커	투자대상	AUM(\$MM)	평균 거래대금	운용보수	수익률		FFLO(\$MM)	
					1W	4W	1W	4W
IWF	미국 대형 성장주	74,569	1,306,228	0.19%	2.51%	5.17%	6,773.8	6,104.0
SPY	미국 대형주	366,491	71,774,844	0.09%	2.82%	1.90%	3,935.4	2,232.9
IWP	미국 중형 성장주	17,826	1,101,351	0.24%	3.62%	6.46%	2,322.9	2,264.8
IWN	미국 소형 가치주	18,999	1,600,788	0.24%	4.29%	1.11%	1,923.7	1,796.4
IWD	미국 대형 가치주	55,006	2,651,001	0.19%	3.24%	-0.78%	1,713.8	1,629.1
VONG	미국 중대형 성장주	7,406	421,265	0.08%	2.67%	5.16%	851.1	904.4
IWR	미국 중형주	30,110	1,354,451	0.19%	3.82%	1.83%	796.5	930.1
VWO	신흥시장 주식	83,054	8,774,377	0.10%	2.21%	1.79%	546.9	847.3
SPYG	미국 대형 성장주	11,450	1,703,795	0.04%	2.36%	4.41%	525.8	388.3
OMFL	미국 대형주	2,066	145,183	0.29%	3.58%	0.66%	510.2	540.8
VONV	미국 중대형 가치주	6,297	548,163	0.08%	3.22%	-0.76%	489.8	1,544.5
ARKK	전세계 혁신 기업 주식	23,753	10,846,733	0.75%	5.54%	11.94%	376.8	294.7
IEUR	선진유럽 주식	5,168	790,562	0.09%	1.93%	-0.01%	327.8	647.1
VGT	미국 기술업종 주식	46,412	425,865	0.10%	2.46%	5.74%	319.2	472.0
XLY	미국 경기소비재 주식	19,881	3,813,388	0.12%	3.50%	3.10%	305.8	99.5
IWY	미국 대형 성장주	4,124	112,766	0.20%	2.28%	4.86%	303.6	303.6
VT	전세계 주식	21,630	1,776,898	0.08%	2.63%	1.54%	287.9	353.0
XLU	미국 유틸리티 주식	11,335	10,837,886	0.12%	0.58%	-1.05%	278.4	23.8
ONEY	미국 대형주 수익 추구 전략	926	16,151	0.20%	4.20%	-0.99%	271.9	273.9
VTWV	미국 소형 가치주	1,361	73,142	0.15%	4.34%	1.21%	260.5	283.0

자료: ETFDB.com, 하나금융투자

주1. 기준일: 21.6.25

채권형 ETF

(단위: 백만 달러)

티커	투자대상	AUM(\$MM)	평균 거래대금	운용보수	수익률		FFLO(\$mm)	
					1W	4W	1W	4W
IGSB	미국 단기 IG 회사채	26,340	2,986,969	0.06%	0.05%	-0.15%	443.2	810.7
HYG	달러표시 HY 회사채	20,182	20,075,738	0.49%	0.57%	1.20%	394.0	1,982.8
BND	미국 전체 IG 채권	77,917	5,797,742	0.04%	-0.42%	0.51%	248.7	2,443.8
VCSH	미국 IG 단기 채권	40,155	2,700,380	0.05%	0.04%	-0.17%	240.4	822.3
JNK	달러표시 HY 회사채	9,526	7,954,857	0.40%	0.54%	1.22%	196.9	1,287.3
SPMB	미국 MBS	3,892	1,036,914	0.04%	-0.04%	-0.18%	180.5	216.4
USHY	미국 HY 회사채	8,334	2,154,440	0.15%	0.53%	1.37%	177.9	338.6
TLT	미국 장기 국채	14,730	13,783,353	0.15%	-2.55%	2.72%	161.9	1,864.2
VTIP	미국 TIPS	14,895	2,245,235	0.05%	0.36%	-0.13%	136.5	956.1
GOVT	미국 국채	16,969	4,973,889	0.05%	-0.62%	0.28%	127.3	373.5
VGLT	미국 장기 국채	2,376	845,491	0.05%	-2.36%	2.55%	122.8	189.1
BIV	미국 IG 중기 채권	14,457	986,405	0.05%	-0.32%	0.38%	107.7	9.7
VTEB	미국 IG 채권	13,180	1,236,874	0.06%	-0.24%	0.15%	99.5	544.3
SRLN	전세계 시니어론	6,083	1,683,151	0.70%	0.30%	0.54%	97.1	753.9
AGG	미국 IG 채권	88,283	5,519,666	0.04%	-0.37%	0.41%	92.1	124.2
JPST	달러표시 단기 채권	17,291	2,555,979	0.18%	-0.03%	-0.06%	91.3	370.2
SPTL	미국 장기 국채	3,578	2,105,062	0.06%	-2.35%	2.54%	91.2	6.7
SCHP	미국 TIPS	18,163	2,272,162	0.05%	0.32%	0.30%	86.7	640.7
SCHR	미국 중기 국채	3,424	656,811	0.05%	-0.21%	-0.15%	85.3	11.3
MUB	미국 IG 지방채	22,670	1,203,269	0.07%	-0.32%	0.13%	81.9	643.9

자료: ETFDB.com, 하나금융투자

주1. 기준일: 21.6.25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연준은 기존 스탠스대로 경기 회복이 확인되는 국면에 들어서야 후행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뜻을 인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모습은 장단기 금리 커브 변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상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안정과 경기회복이 향후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변수로 인식될 것이다. 이 가운데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던 인프라 정책 관련 협상 진전은 향후 고용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펀더멘털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는 미국 퀄리티 ETF QUAL에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QUAL (i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미국 퀄리티 주식	- 우수한 퀄리티를 가진 미국의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 펀더멘털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	2021년 6월 28일	132.80 132.80	- -
주식형	FDN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und)	미국 인터넷 기업	-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 - 금리 박스권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2021년 6월 28일	246.27 246.27	- -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술주	- S&P 500의 기술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 금리 박스권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2021년 6월 11일	141.97 146.75	3.37% 2.68%
주식형	XL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금융주	- S&P 500의 금융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 중장기 인플레이션 경계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2021년 5월 17일	37.88 36.66	-3.22% -5.40%
주식형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초 소재	- S&P 500의 기초 소재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확정되는 것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수혜	2021년 3월 1일	75.41 82.13	8.91% 0.69%
주식형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산업재 관련 기업	- S&P 500에 속한 산업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와 인프라 중심의 'Build Back Better' 정책 수혜 예상	2021년 2월 5일	88.99 101.81	14.41% 3.78%
주식형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미국 ESG 우수기업	- 미국의 ESG 우수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 전세계에서 관심이 많은만큼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ESG 분야는 짧지만 트랙레코드 우수. 장기적 우상향 전망	2020년 11월 20일	81.38 98.33	20.83% 3.18%
채권형	TIP (iShares TIPS Bond ETF)	미국 물가채	- 미국 만기 1년 이상의 물가채를 추종하는 ETF -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금도 꾸준히 상승하며, 금리 수익과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 이익 수취 가능	2020년 12월 30일	127.65 127.77	0.09% 2.81%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GSCI Index 적용

Global Weekly 투자유망ETF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누적(설정이후)	
	절대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절대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절대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0%	-0.64%p	+45.04%	+16.98%p	+59.38%	+18.35%p

✓ 글로벌 ETF 제외종목: JETS(2021.03.29~2021.06.28, -8.1%), PEJ(2021.03.01~2021.06.28, +4.8%)